

# 관광대상으로서의 도시와 도시사람들의 관광욕구 -근세 일본의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황달기\*

계명대학교

근세 일본의 에도관광은 ‘모든 길은 에도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된 교통망과 숙박시설, 이세참배라는 대유행 현상, 전국 다이묘들의 산킨코타이, 전국 유명사찰의 에도 출개장(出開帳), 각종 법적 소송을 위한 지방사람들의 에도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관광대상으로서의 에도에 관한 정보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전국 각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에도관광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에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간소외와 사회불안이 가중되자, 에도 사람들은 정신적인 안정과 구원을 위한 신사·사찰참배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락·유람여행에 적극 나섰다. 에도의 많은 변화가는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개인과 집단과의 교제로 인한 긴장과 구속을 익명성(anonymity)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관광대상으로서 도시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명소와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소외와 긴장,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변화가와 유혹시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도시문명의 자기표현 장치’로 중요한 관광자원인 셈이다.

근세 초기에 시작되어 중기에 일반화된 참배와 행락이 세트된 여행형태는 후기에 이르러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보고 즐기기 위한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된다. 근세 초기까지의 참배와 행락이 세트된 여행이라 해도 참배는 대단히 형식적이었으며, 실제는 행락이나 유람 목적의 관광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관광의 성행 자체가 에도시대의 전국 각지에 새로운 문화를 낳게 했으며, 근세 일본문화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공간이동이라 할 수 있는 관광문화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세참배 신앙에 뒷받침된 여행의 체계화(加藤 1976: 166~70)와 함께 문화 혁신의 장으로서, 관광대상으로서, 내발적 충동(관광욕구)의 전원지로서 도시가 갖는 매력은 근세 일본의 행락적 관광문화의 성립과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I. 도시를 주목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근세 후기의 일본사회에서는 ‘이세참배’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여행붐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세(伊勢)는 보통 50~70일간이나 걸리는 장기간의 여행일정 중, 최종 목적지라기 보다 수 많은 경유지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櫻井 1985:157~73; 山本 1985: 73~75, 1987: 336~40; Vaporis 1991: 18). 그들의 여행일정 중에는 에도를 비롯한 나라,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 지역과 그 주변의 명승고적지가 대부분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도는 당시의 수도로서 급격한 도시화로 ‘미야코’(都)적 성격을 획득하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면서, 동북지방 사람들의 이세여행길의 단골 경유지는 물론 일본 제일의 관광도시로 부각되었다. 그들이 남긴 수많은 여행일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도시에 대한 관심은 근세 후기에 일어난 여행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인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농촌이나 도시의 교외가 아닌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다름 아닌 에도시대(1603-1868)부터 ‘삼도론(三都論)’이라는<sup>1)</sup> 도시부를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 중에서도 일본인의 ‘미야코’(都)에 대한 관심은 종세의 지방 무장에서 근세 이후의 민중에 이르기까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많은 지방도시들은 미야코였던 나라(奈良)나 교토(京都)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중세 말기에 천하통일을 꿈꾸던 지방의 무장들이 자신들의 ‘조카마치’(城下町, 城市)를 건설함에 있어서, 교토를 모방하여 각각 자신들의 작은 교토(小京都)를 건설한 것이다(西川 1994: 160-62).

근세가 되면, ‘삼도’와 각지의 조카마치를 기본축으로 하는 지배체계가 확립되는데, 특히 각지의 도시들(번의 소재지)은 에도를 모방하여 도시의 중심에 성을 만들고, 그 주위에 물류나 유통을 위한 변화가를 조성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새로운 수도 토쿄를 대표하는 변화가로서 ‘긴자’(銀座)가 전국의 중소도시에 개화문명의 실물교사로서 ‘○○○긴자’라는 이름으로 모방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인의 수도(도시)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의미하며, 곧 수도로 가는(인구이동이나 집중), 수도를 보는(여행이나 관광)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일본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시대의 여행이나 관광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그것도 가장 화려한 변화가가 있는 ‘미야코’에 가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광대상으로서의 미야코에 대한 관심은 1955년 경부터 시작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량 유입될 때까지 지속된다. ‘토쿄肯부츠’(동경구경)나 ‘토쿄다요, 오카상’(동경이야, 어머니)과 같은 대중가요가 크게 유행한 것도 이 시기이다(高田 1988: 17).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하나노 미야코’(화려한 수도) 토쿄의 변화가와 명소, 유적을 돌아보고 장차 도래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 당시의 여행이나 관광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 글쓴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근세에 일어난 여행붐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어 온 ‘이세마이리’라는 종교적 현상에 있었다기 보다 근세에 들어와 급속도로 진전된 도시와 도시문화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인의 도시(미야코) 지향성을 본고의 주제인 ‘관광’이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 보면, 근세 일본의 관광과 도시의 역동적 관계는 물론 당시의 관광 대중화에 도시(미야코)가 미친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인들의 도시(수도)지향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도시가 지니는 관광매력을 지역사회 중심의 구속된 삶의 양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변화

<sup>1)</sup>삼도론은 에도(江戸)와 오사카, 교토가 각각 자신들의 세련된 도시문화를 자랑하는 근거로 삼은 특이한 오락문화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가(유곽이나 시장)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근세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를 대상으로 급격한 도시에 따른 시골사람들의 에도관광과 에도시민의 행락문화를 역사적 자료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 II.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미야코(都)'란?

### 1. 미야코 지향의 역사·문화적 배경

한 나라의 수도(首都, capital)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가장 관심 있는 관광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주나 서울이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잡은 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에 오랫동안 도읍이었거나 현재 제일의 도시인 수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나라나 교토, 토텔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로마, 중국의 북경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수도라 하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강하나, 그 외 경제나 문화, 정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유흥을 위한 변화가가 몰려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도시를 의미하며, 일본어의 도시는 미야코(都, capital)와 '이치'(市, market)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여기서 '미야코'란 그 나라의 혹은 지역의 정치적 권위와 고도로 발달된 문화체계를 어떤 종교적 권위를 통해 표현하려는 장치계를 의미하며, '이치'란 그러한 문화가 각인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한 장치계로 볼 수 있다 (高田 1991: 3).

에도는 근세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당시 일본 최대의 관광도시였음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럼, 여기서 당시 일본인들의 미야코로서 에도에 대한 관심(미야코 지향)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코지엔(廣辭苑)에 따르면, 미야코는 크게 다음 3가지 의미를 지닌다. 미야코는 ①제왕의 궁전이 있는 곳, ②수부(首府)와 수도 ③(시골에 비해서) 인구가 집중되어 정치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인 변화한 곳을 말한다.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미야코의 왕궁성, 수도성, 도시성이라 해 두겠다. 완전한 미야코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을 말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미야코였던 교토는 794년부터 1868년 에도시대까지 '미카도'(천황)의 왕궁소재지였으나, 카마쿠라시대(鎌倉, 1185-1333)와 에도시대는 중앙의 정치권력 소재지가 아니었다 (칸노 1996: 28-29). 다시 말해서 ①과 ②가 중첩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는 기간으로 구별된다는 말이다. 또한 에도시대에는 수도성을 획득한 에도의 등장으로 일본인의 미야코 관념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에도와 교토라는 두 개의 미야코가 성립된다. 이는 에도와 교토가 각각 왕궁성과 수도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미야코로 일본인들의 인식세계에 동시 병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래 미야코가 지니고 있던 왕궁성과 수도성은 분리되었다. 더욱이 도시성마저 분리되어 같은 시기에 상업 중심지였던 오사카를 포함하여 '삼도'(三都)라고 까지 했다.

천년 이상의 미야코 교토는 에도와 오사카의 출현으로 미야코로서의 이미지는 크게

퇴색하게 된다. 근세 초기의 교토의 대표적인 가이드북인 ‘경작’(京雀, 1655)에는 17세기 중엽까지 “미야코 전체가 시장같다”고 할 정도로 번영을 구가했다 (園田 1994: 70). 50년 뒤인 겐로쿠시대(元綠, 1688-1704)까지도 교토는 그 지위가 크게 변화지 않았다. 캠펠(Kaempfer, Englebert)의 『에도참부여행일기』(江戸參府旅行日記, 1691)에서,<sup>2)</sup> “교토의 공예품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 ‘쿄(京)’의 제품이라는 이름만 붙이 있으면, 실제 품질이 나빠도 다른 물건보다 훨씬 선호되었다”(肯ペル 1977: 128)는 지적에서도 당시의 교토의 위상을 읽을 수 있다.

에도시대 중기까지 일본인이 ‘쿄토에 노보루(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련된 상품구매나 최신 유행의 풍속들을 구경(관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곧 천년의 미야코(왕궁성)만의 우아하고 품위있는 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100년 동안에 교토는 급격히 쇠퇴하여(도시문화의 황폐화), 일본 제일의 화려한 미야코로서의 자리를 에도에 물려주게 된다. 교토의 도시성의 쇠퇴는 더이상 매력있는 살거리나 볼거리로서의 위치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자 대부분의 교토에 관한 가이드북은 명소나 유적의 소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교토관광도 과거의 왕조의 영광이나 미술, 문학, 종교의 유적을 돌아보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園田 1994: 76).

한편, 에도는 에도 초기에 막부가 설치됨으로써 명실공히 수도성을 획득했으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관광의 주요대상인 도시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에도의 ‘미야코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였다. 18세기 초인 에도 중기 이후, 여러 문헌에 에도를 동도(東都)로 표기했으며, 이와 동시에 교토를 서도(西都)나 서경으로 부르기도 했다 (闊田, 같은 책 82쪽과 86쪽). 따라서, 에도시대 후기에는 절대적인 미야코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발전도상의 동도인 에도와 ‘고도’(古都)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교토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명치유신 이후 황궁의 토쿄이전으로 에도가 토쿄로 바뀌면서 미야코 관념의 재통합이 이루어졌다.

황궁의 토쿄이전은 왕궁성의 획득으로 미야코의 완전한 부활을 노렸던 유신정부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토쿄는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에도시대에 이은 제2의 인구집중기를 맞이하며, 세계 유수의 수도이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완벽한 미야코성의 획득이란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인의 미야코 관념은 고대이래의 왕궁성과 에도시대에 현저히 발달한 도시성, 그리고 근대국가가 표방한 수도성이 복잡하게 충돌, 타협, 혼합되어 서서히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일본의 미야코가 시대에 따라 사람들은 떨집시키는 원동력을 무엇일까? 전국(戰國)시대의 지방무장들의 권력적 야망(왕궁성과 수도성)과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국가 이데올로기와 같은 지배와 폐지배의 구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토쿄의 ‘진자’나 한국의 명동과 같은 도시성(변화가)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

<sup>2)</sup>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나가사키(長崎) 네지마상관(出島商館)에 소속된 의사로서 1690년 9월부터 1692년 10월까지 일본에 있었다. 『에도참부여행일기』는 1691년 에도를 방문했을 때의 여행기록이다.

다고 본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구속적 사회의 탈일상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관광대상(자원)으로서 도시가 지니는 문화적 탁월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도시의 세련된 문화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관광매력으로서 지속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1970년대에 들어가면, '근대화'라는 목표가 거의 달성되고, 동시에 그 이전까지는 '장미빛 미래'로 그려지던 경제발전의 결과가 각종 공해문제가 발생되면서 일본인들은 근대화가 자신들의 바라던 삶의 질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시고토닌겐'(일에 만 물두하는 사람)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인'으로 변하게 된다. 여행과 관광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시대정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당시의 국영철도회사의 '디스카버 재팬' 캠페인이 일어나게 된다(白幡 1996: 79-81). 이 때부터 '지방'이나 '전통문화', '아름다운 자연', '고향 사람들' 등, 관광의 목표와 대상이 '잃어 버린 고향' 이미지의 '향수'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여행과 관광을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그 방향이 역전된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제 2세대들에게 있어서 '디스카버 재팬'이 추구한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경험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부모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속의 유사체험을 통해 형성된 광경으로서의 노스탤지어가 관광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디스카버 재팬'에 의해 촉발된 중앙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관광의 흐름은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 지방과 도시라는 대립적 개념이 모든 주거지역의 도시화(도시적 생활양식의 전국적 보급과 확대)로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신문이나 잡지 TV 등의 메스 미디어에 의해 보다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 사람들의 생활 이미지와 노하우가 전국에 보급된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여행이나 관광의 흐름도 '시골에서 도시', '중앙에서 지방'이라는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도시와 시골, 중앙과 지방이 무질서하게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2. 관광대상으로서의 근세도시

근세의 에도는 1590년 토쿠가와(徳川家康)의 에도입성으로 시작된다. 당시의 에도는 성도 작고 성 주위에 평 놓은 방어용 수로의 폭도 좁았으며, 성을 둘러싼 시가지도 남북 약 1.2km 동서 약 3.7km 정도에 불과했다(山本 1987: 249). 1600년 천하의 폐권을 잡은 토쿠가와가 1603년 정이대장군에 임명되어 에도에 막부를 열고나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한다.

1635년 에도막부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번주의 일정기간 에도거주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산킨코타이'(參勤交代)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에 의해 중앙의 에도와 지방의 각 번 소재지(城市)가 강력히 결합되었으며, 에도를 중심으로 한 '고카이도'(五街道)의<sup>3)</sup> 도로망이 정비되었다. 이를 계기로 에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전국적 규모의 인적

<sup>3)</sup> 에도와 교토간을 태평양 연안으로 연결하는 '토카이도'(동해도), 중부 산간지대를 통과하는 '나카센도'(中山道), 에도와 닛코(日光) 사이의 '닛코가이도'(日光街道), 에도의 우츠노미야(宇都宮)에서 시라카와(白川)에 이르는 '오슈가이도'(奥州街道)가 있다.

교류와 물적 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農田·兒玉 1970: 135-40). 모든 길을 에도로 통하게 한 것이다.

산킨코타이에 의한 지방 번주들의 강제적인 에도거주는 에도를 ‘무사의 미야코’로 만들었으며, 막부의 가신단과 지방 번주들의 가신까지 합세한 무가(武家)귀족들에 의한 사치스러운 소비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지볼트(Siebold, Philipp Franz von)는 『에도참부기행』(江戸參府紀行, 1826)에서<sup>4)</sup> 당시 에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가장 눈에 잘 띠는 오락장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극장 외에 아사쿠사관음사(淺草觀音寺)이며, 그 곳에서 사람들은 신앙이란 명분으로 유희를 즐기는데, 신앙은 세속의 욕구와 잘 결합되어 있다. 료고쿠바시(兩國橋) 근처에는 매일 시장이 서며, 가부음곡의 놀이가 끊이지 않는다. 스미다강에는 특히 더운 여름철이 되면 무수히 많은 유람선이 지나다니며, 배 위에서는 여러가지 유흥이 펼쳐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에도의 번영으로 전국에서 이름난 유곽거리 신요시와라(新吉原)에는 전국에서 이름난 창녀가 한 곳에서만 5,000명이나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ジーポルト 1967: 214-15).

이러한 소비도시로서의 에도의 번영은 지방번주들의 귀향행렬을 따라 지방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지방 민중들에게는 별천지나 다름없었던 에도에 집중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활기 넘치는 에도의 도시생활이 당시의 일본인들에게는 대단한 매력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쿄토는 8세기 후반부터 전통적 귀족문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민중적 종파의 본산이 자리잡으면서 독특한 도시공간과 문화를 형성해 왔다. 에도중기부터 서민 사이에서는 이들 본산이나 명소, 유적을 돌아보는 관광여행이 성행했다. “화락명소도회”(花洛名所圖會)나 “도명소도회”(都名所圖會), “경우이중”(京羽二重) 등의 명소안내서가 간행되자, 이러한 경향은 한층 심화되어 쿠토는 관광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되었다 (西川 1994: 232-33). 이러한 문화적 전통의 축적과 혁신에 의한 쿠토의 도시발전은 당시 일본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볼트나 캠벨 같은 당시의 외국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ジーポル트 1967: 235-36; ケンペール 1977: 121-30, 221-33).

오사카는 1583년 천하를 통일한 토요토미(豊臣 秀吉)가 이시야마혼간지(石山本願寺) 터에 오사카성을 건설하고, 그 주위에 사카이(堺)나 후시미(伏見)의 상인들을 이주시키고, 여러 번주들로 하여금 저택을 짓게 했다. 토요토미 정권의 수도로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1600년 토쿠가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1619년 에도막부의 한 직할도시로 격하되었다. 그 후 각 번은 오사카에 대형창고를 지어, 거기서 쌀이나 지방 특산물을 가져와 판매하고, 그 대신에 일용품을 구입해 이것을 에도로 가져갔다. 즉, 전국규모의 상품유통 도시가 된 셈이다. 오사카의 상인들은 이러한 상업활동에 의한 부의 축적을 기반으로 문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풍부한 경제력으로 극장이나 유곽이 발달했으며, 소설이나 하이카이(俳諧) 등의 문예활동도 활성화되었다 (西川 1994: 226-28).

<sup>4)</sup>필립 프란츠 본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는 캠벨과 같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나가사키 데지마상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1826년 데지마상관장을 따라 에도를 방문하는데, 이 때 기록한 여행일기인 『에도참부기행』이다.

지볼트도 이러한 오사카의 극장이나 찻집, 요정, 곡예단, 유곽 같은 대중적 오락과 시장의 발달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ジーポルト 1967: 157, 240). 캠벨도 앞의 『에도참부여행일기』에서 17세기 후반의 환락도시 오사카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ケンペル 1977: 115). 그는 특히 극장을 비롯한 가설무대나 번화가 등의 유흥가를 구경하는 수많은 여행객에 놀라고 있다.

이상에서 알펴본 바와 같이, 에도와 오사카, 교토와 같은 근세 일본의 도시는 새롭고 세련된 문화, 폐적한 환경, 명소나 유적의 집중, 유흥이나 오락시설의 완비, 쇼핑 등으로 당시 대다수 일본인들에게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별천지로서 대단한 구경거리였다. 특히 시골사람들에게는 공동체적 삶의 속박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행락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관광을 뒷받침하는 사회 문화적 기반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고도로 정보화된 산업사회로 변모한 지금, 이러한 관광대상으로서의 도시가 지닌 성격이 토쿄와 같은 근대적 문명중심의 도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시대에 따라 일본인들이 도시를 어떻게 봐 왔는가 하는 문제로서 도시관광의 발생과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 3. 현대도시의 새로운 관광매력

토쿄는 7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모든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동원된 상품이 범람하고, 최신 유행의 예술과 학문, 기술이 이 곳에 모임으로써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서도 수 많은 여행자가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가 된다. 이 시기에는 토쿄를 비롯한 각 지역의 도시들이 그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게 된다. 이처럼 거대화된 도시는 ‘휴먼 사이즈’로는 도시 자체의 시각적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근세 에도를 포함한 일본의 대도시들은 휴먼 사이즈로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도시 속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면, 아사쿠사지(淺草寺)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상점이나 유곽, 극장, 유흥음식점 등, 모든 도시적 유흥시설을 한 곳에 모은 ‘사카리바’(번화가)로서 ‘아사쿠사’가 성립된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함).

메이지시대(明治, 1868-1914)에 들어가면, 긴자(銀座)가 새로운 변화가인 사카리바로 등장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주쿠(新宿)의 ‘카부키초’(歌舞伎町)나 시부야(渋谷), 하라주쿠(原宿), 롯폰기(六本木)가 새로운 취향의 사카리바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타카다(高田公理)의 지적처럼, 이는 모두 ‘근세 이전의 제례 때에, 정해진 날에 일시적으로 마련된 노점상이나 흥행시설 등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영구적으로 장치화한 도시공간’(高田 1991: 6)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가나 사카리바는 여전히 도시주민들에게 유흥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 사람들의 도시관광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 속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사카리바는 거대도시를 휴먼 스케일로 시각화하기 위한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주나 일본의 나라와 교토처럼, 과거의 역사를 유적이라는 형태로 동결함으로써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우도 있다.

거대도시의 휴먼사이즈모형으로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주제를 체계적인

최첨단 과학기술로 유희적으로 표현하는 박람회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의 ‘오사카엑스포’를 시작으로 최근의 ‘꽃박람회’까지 수 많은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특정지역에 그것도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유희적 공간으로서의 각종 박람회는 최근에 이르러 영구시설화하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테마파크의 건설 붐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1983년 동경디즈니랜드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에 20개에 이르는 테마파크가 건설되었 다(高田 같은 책: 12-16; 能登路 1990: 225-34). 이들은 모두 근세 초기에 제례의 시공 간을 영구적으로 시설화한 유희공간으로서의 사카리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간 수백만에서 천만을 넘는 관람객으로, 테마파크관광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에서, 관광대상으로서의 도시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은 읽을 수 있다. 즉, 관 광대상으로서 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도시주민의 생활구조 안에서 짹트고 있는 새로운 관광형태(테마파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테마파크관광이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미적 기준의 다양화와 도시 자체의 디자인, 도시민의 생활양식 등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관광을 전체적 도시구조에서 따로 떼어내어 부분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변용이 도시와 인간, 그리고 삶의 가치의 모든 변용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村山 1984: 6). 이 문제는 이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음 해의 연구과제로 삼고 싶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세 에도가 당시의 관광대중화에 미친 내용과 영향에 대해 에도의 명소와 불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에도의 명소(名所)와 불거리

#### 1. 명소안내기의 성립과 유행

일본어에서 명소의 사전적 의미는 ‘이름난 땅이나 경승지(景勝地)’를 가리킨다. 또한 명소를 ‘나도코로’로 읽으면, 일본 고유의 정형시인 와카(和歌)에 나오는 지명이 된다. 와 카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난 곳이라 해도 명소나 나도코로가 아닌 ‘고적(古跡)’이라고 했다. 나도코로는 어디까지나 와카 속에 등장하는 말로서, 실제 그곳에 가서 와카를 읊는 것이 아니라, 와카의 내용이나 이미지에 맞춰서 읊어지는 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근세에 이르러 실제로 나도코로를 방문해서 와카를 읊게 되었으며, 명소도 와카의 관념적 세계의 산물인 ‘나도코로’에서 실제로 찾아가서 즐기는 행락지(관광지)로서 명소가 된 것이다(石森 1991: 4; 加藤 1995: 116; 김 1997).

미즈에(水江漣子)는 근세 초기의 에도 명소의 성립과 명소기의 계보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명소는 중세까지 고전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에 지나지 않았으며, 근세 초기인 케이초시대(慶長, 1596-1615)에 에도를 둘러보고 쓴 미우라(三浦淨心)의 『견문집』(見聞集)에서 처음으로 ‘가봐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水江 1985: 6-7). 여기서 우리는 에도 초기에 일본인의 명소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도에 대한 근세 초기의 안내기를 모아 분석한 미즈에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있다. 그녀의 분석대상이 된 안내기는 최초의 에도안내기라 할 수 있는『견문집』를 비롯하여, 에도성의 위용을 자세히 묘사한『죽재』(竹齋, 1621-1623), 에도시내를 구경한 내용을 담은『아즈마메구리』(1643년), 에도에서 토카이도(東海道)의 아이사카노세키(相坂ノ關)까지의 노정을 기록한『병진기행』(丙辰紀行, 1625년), 야나가와(柳河)에서 에도까지의 길을 안내한『덕영종구기행』(德永種久紀行), 에도시내의 유적과 거리의 모습까지 기록한『색음론』(色音論), 본격적인 유람목적의 여행안내기라고 할 수 있는『에도명소기』(江戸名所記, 1677년)와『강호작』(江戸雀),『고향귀급강호돌』(故郷歸及江戸, 1687년) 등이다.

여기서 이들의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으나, 첫번째의『견문집』은 명소관의 변화가 나타난 명소기의 효시로서 의의가 크며,『죽재』에서『색음론』까지는 모두 1615-1644년 사이의 에도를 기행하고 기록한 책으로서, 에도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에도명소기』 이후의 것은 본격적 유람을 목적으로 한 여행안내기로서, 여행에 대한 예찬과 각 구간별 거리, 에도명물의 소개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앞서 간행된『동해도명소기』(東海道名所記, 1659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들이다(水江 1974: 31-67).

『에도명소기』의 ‘명소가 많은 에도 주위를 돌아본다’는 표현에서, 이미 돌아봐야 할 에도의 명소가 꽤 많이 성립되어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주로 ‘명소고적’으로 자리잡은 사찰이나 신사에 관한 80장의 삽화를 넣어(水江 1974: 76), 시각적 이해를 도운 것은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하는 ‘모방체험’(擬似體驗)으로서 관광(葛野 1996: 124-25)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강호작』이나『고향귀급강호돌』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권의 안내기는 시골사람들의 에도관광을 안내하는 형식으로 꾸몄으며, 특히 종래의 고적이나 구적(舊蹟)에 한정하지 않고, 니혼바시(日本橋)와 같은 새로 등장한 에도의 명소에 관한 안내와 니혼바시에서 각 지역간의 거리를 나타낸 것(水江 1974: 91) 등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최초의 명소관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견문집』의 무대가 왜 에도였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에도의 도시화에 따라 삶의 양식 중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과, 전국(戰國)시대의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에 정착하는 시대적 격동기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지식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시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이 시간적·공간적 기록으로서의 견문기나 ‘이야기’ 등의 문예양식을 성립시켰다고 하는 주장(林屋 1953: 322)에도 주목해야 한다. 근세초기는 에도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 시기였다. 이러한 에도의 급속한 변화(변화함과 활기)라는 맥락에서 에도의 명소기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에도안내기가 성행한 시대적 배경과 관광에 미친 여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명소기의 계보에서 보면, 명소유람의 분위기는 이미『동해도명소기』부터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동해도명소기』는 동해도 상의 명소를 자세히 안내할 목적으로 써어졌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산킨코타이에 따른 도로의 정비나 숙박업의 발달로 에도로 향하는 여러 형태의 여행, 예를 들면 지방 다이묘(大名) 행렬이나

쿄토의 궁정귀족의 에도이주, 상업을 목적으로 한 여행, 이세나 코야산(高野山) 등의 사찰이나 신사 참배, 관광유람(物見遊山)을 즐기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다 (新城 1971: 80-82).

이러한 시기의 명소안내기의 출판은 전국규모로 확대되고 있던 인적 교류와 물적 유통을 기반으로 도시 사람들, 특히 상인들의 사회적 수요(山本 1987: 278-79)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에도명소기의 배경은 잊은 대화제로 인한 에도명소의 변화, 예를 들면 1662년 소실된 사원이나 신사의 복원, 유곽 요시와라(吉原)의 이전에 따른 새로운 명소의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새롭게 일어나는 행락의 기분은 이러한 새명소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명소유람은 곧 행락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실적 묘사에 충실했던 명소기를 접함으로서 미지의 세계를 보는 행락성은 증대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광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실용성도 함께 증대된다. 에도의 급변하는 명소환경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명소안내기의 내용을 모방하는 체험으로서의 관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7-18세기에 에도시민은 왕성한 행락활동을 벌여, 시내 및 근교에 다양한 명소를 성립시켰다. 그 배경은 첫째, 갑작스런 도시화에 따라 자연과의 교류가 일상생활 안에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와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사나 사찰을 찾는 신앙활동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세 초기에 명소안내기가 유행한 것은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행락문화, 특히 도시사람들의 향락성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행과 관광은 바로 이러한 행락문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었다.

## 2. 에도의 관광명소

우선 『견문집』의 관심은 에도에서 최초로 인구가 집중된 번화가에 쏠려 있었다. 특히 『견문집』 제8권에 의하면, 아사쿠사(淺草)의 관음(觀音)이나 유시마(湯島)의 텐진(天神), 칸다(神田)의 묘진(明神), 카이즈카(貝塚)의 산노콘겐(山王權現), 오지(王子)의 이나리(稻荷), 사쿠라다산(櫻田山)의 아타고(愛宕) 등의 구적(舊蹟)에는 밤낮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참배가 이어졌다고 한다 (水江 1984: 22에서 채인용). 그밖에 『죽재』의 에도성, 『병진기행』의 무사시(武藏)와 아사쿠사, 칸다묘진(神田明神), 아타고(愛宕), 스미다강(隅田河), 그리고 『색음론』의 요시와라(吉原) 등이 에도의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水江 1974: 39-56; 1985: 21). 즉, 이시모리(石森 秀三)도 지적한 것처럼, 에도시대의 명소는 종교적 시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여기서 이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 관광명소 중 네 곳만 골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오지(王子) – 에도시민의 행락명소

오지지역은 에도 니혼바시에서 북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당일치기 행락지의 대표적 장소였다. 1873년 우에노(上野)공원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토쿄 5대공원 중의 하나이다. 이 부근에는 오지곤젱야(王子權現社)를 비롯하여, 오지이나리샤(王子稻荷社), 칸린지(金輪寺) 등의 효험이 있기도 소문난 신사와 사찰도 있다. 오지지역은 봄에는 아스카산(飛鳥山)의 ‘하나미(花見, 꽃구경)’, 여름에는 신사나 사찰의 제례,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구경 등의 사계절 행락지로서 에도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오지지역이 에도명소로서 특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토구가와 막부의 8대장군이었던 요시무네(吉宗 1684-1751)가 아스카산에 벚꽃을 심은 후, 에도시민의 벚꽃놀이 행락지로서 유명해졌다 (小木 1995: 118). 에도 중기 이후, 교토의 마루야마(丸山)와 오사카의 텐노지(天王寺), 에도의 우에노와 같은 삼도(三都)의 명소를 비롯하여, 각지의 명소에서도 하나미가 행해졌다 (南・落合 1985: 499-500). 하나미가 행락이나 유람을 부추기는 대표적 놀이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하나미와 단풍놀이와 같은 관광유람이 도시 상인들의 단체 행락문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神崎 1991: 20-26; 米山 1986: 135-39)는 당시 관광의 오락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 밖에 오지가 명소로서 부각된 것은 오지곤젱야의 여름제례 때 승려들에 의해 공연되는 덴가쿠오도리(田樂躍)가 대단히 인기있는 불거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기 위해 경내에 모인 수 많은 인파들로 공연단이 입장할 수 없어 이들을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의례가 추가될 정도였다 (小木 1995: 119). 제례 때는 참배객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 대나무로 만든 창을 바치는 것에서 ‘야리마츠리’(창제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칸린지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약을 배포한 것도 에도시민을 불러 모은 요인의 하나였다 (小木, 같은 책 119, 123, 125쪽). 앞에서 인용한 키요카와의 『서유초』에서도 오지를 연중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에도 제일의 행락지로 평가하고 있다 (清河 1969: 197-98). 오지를 명소로 부각시키는 데는 여우를 의인화한 ‘꼭두각시인형’(小木 1995: 129-30)과 라쿠고(落語, 만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나리신앙의 보급과 함께 현지 농민들이 다음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 위해 키즈네비(狐火, 여우불)를 밝혔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 많은 에도시민이 오지를 찾았다 (小木, 같은 책 126쪽).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에는 종교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상신뿐만 아니라, 거기서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에코인(回向院) – 개장과 관광의 명소

에도 중심부를 남북으로 흐르는 스미다강의 하류에는 료고쿠바시(兩國橋)가 있고, 그 동쪽에 자리잡은 에코인은 개장(開帳)의 명소로서 에도시대에 크게 번성한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장이란 평소 참배객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불상을 일정기간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본래 개장은 영험이 있다고 하는 불상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순수한 종교적 행사로 시작되었다. 에도시대에 이르러 토쿠가와 막부의 신사나 사

찰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축으로, 신사나 사찰의 재정안정을 위해 신자들로부터의 봉헌금 품이나 새전(賽錢)을 모으기 위해 행해졌다 (石森 1991: 6-7). 이러한 개장에는 불상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개장(居開帳)과 다른 곳에 가서 하는 출개장(出開帳)이 있다.

에코인은 지방 사찰의 출개장의 메카로서, 그 주변에는 에도는 물론 전국에서 불려드는 수많은 참배객들과 이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들어서 에도의 대변화가 되었다. 이는 강가의 넓은 공간을 낸 입지조건의 우월성과 에코인 자체가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比留間 1980: 5). 특히 강가나 물가의 넓은 공간은 일본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의 성지로 인식된 것 같다. 행상이나 장인, 유랑극단 등이 모이는 신사·사찰의 문전이나 시장, 하천부지, 다리 근처 등에는 세속적 세계에 익매이지 않는 ‘무연(無緣)’의 원리가 작용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神崎 1991: 88). 참배나 행락의 대표적 명소였던 아사쿠사지(淺草寺)나 토미오카하치만(富岡八幡)도 강가에 자리잡고 있다.

에도시대의 개장규모를 보면, 에도에서 열렸던 출개장 741건 중 166건이 에코인에서 있었으며, 30개 번의 사찰이 참가했으며, 1676년의 최초 개장부터 연 평균 1.1건의 출개장이 있었다 (比留間 1980: 6). 에코인 자신의 거개장이나 주변 사찰에서 이루어진 개장까지 포함하면, 에코인을 중심으로 한 개장참배 인파로 가까이에 있는 료고쿠(兩國) 대로와 그 주변은 에도 제일의 번화가와 관광지로 발전했다.

개장에 온 참배객들이 불상만 보고 돌아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일본의 전통예술의 대부분은 신사나 사찰의 종교행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전통극인 카부키(歌舞伎)는 독립하여 에도에 공인된 시바야마치(芝居町, 연극거리)를 만들어 그 곳을 흥행장소로 삼았지만, 미야치시바이(宮地芝居)와 칸진즈모(勸進相撲)<sup>5)</sup> 이전히 신사나 사찰의 경내를 흥행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比留間, 같은 책 7-8쪽). 개장과 미야치시바이, 스모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관람객들의 혼잡을 피했다. 이들의 흥행장으로서 에코인이 주로 이용된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며, 에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번화가에 비해, 료고쿠 대로를 포함한 에코인 일대가 에도의 대변화가로서 부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장은 에코인 외에도 아사쿠사지(淺草寺)나 에노시마벤텐(江島弁天), 고코쿠지(護國寺) 등의 유명 신사나 사찰에서도 열렸다. 개장 기간 중에는 신사나 사찰의 경내나 주변에 음식점이나 유희장, 가설흥행장이 어김없이 들어섰다 (石森 1991: 7). 말하자면 강릉단오제의 난장을 연상하는 임시 번화가가 형성된 것이다.

에코인에서 스미다강 동쪽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는 일대에는 에이다이지토미오카하치만구(永代寺富岡八幡宮)가 있어, 이 곳도 개장이나 스모, 꼭두각시인형극 등으로 대단히 불비는 장소였다. 말하자면, 료고쿠바시는 행락지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한 스미다강 양쪽이 에도의 행락센터였던 셈이다. 매년 납량(納涼)을 위한 강놀이의 개시를 축하하는 ‘불꽃놀이’<sup>6)</sup> 에도의 명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료고쿠바

<sup>5)</sup> 미야치시바이는 신사나 사찰의 제례 등에 경내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한 연극이며, 칸진즈모는 부처의 가르침에 인도할 목적으로 신사나 사찰 경내에서 여는 씨름대회를 말한다.

<sup>6)</sup> 스미다강의 불꽃놀이는 ‘카와하라키(강놀이 개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불거리로 쏘아올렸다.

시 주변의 번화가에 대해 기술한 여러 문헌 중에 『료고꾸시오리』(兩國杆)라는 여행안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 책은 불거리나 먹거리, 살거리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比留間, 앞의 책 20쪽). 『료고쿠시오리』는 시골사람들에게 에도관광을 안내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서, 여행순서는 료고쿠 대로에서 에코인의 개장에 갔다가 다시 료고쿠에 되돌온 다음, 마지막으로 유곽 요시와라를 안내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이른바 개장(참배)에서 번화가(관광), 유곽(유홍)이라는 남성들의 전형적인 행락유형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에도 번화가의 형성과 그것을 돌아보는 행락에 개장이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7세기 후반에 에도와 오사카, 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 이루어진 개장의 관광대상으로서의 현실적인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개장을 위해 동원된 신사와 사찰의 경내나 불상 등의 종교적 장치계와 여러 가지 종교적 제도계, 난장 등은 관광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명체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 (3) 유곽 요시와라(吉原) – 매춘관광의 ‘성지’

번화가(관광지)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당시 ‘아쿠쇼(懲所)’로 일컬어진 유곽의 존재이다. 에도 중기부터 무사들을 대신하여 도시상인들의 유곽출입이 성행하게 된다 (南・落合 1985: 498). 이는 유곽이 세속적 신분질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장이었기 때문이다. 에도의 유곽은 잘 알려진 대로, 막부로부터 공인된 요시와라와 그 외 비공인 유곽인 오카바쇼(岡場所)가 있었다. 요시와라는 오사카의 신마치(新町)와 쿠토의 시마바라(島原)와 함께 에도시대의 3대 공인 유곽이었다. 유곽은 이들 삼도(三都)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성시(城市)나 역촌, 항구 등의 지방에서도 번성했다 (新城, 1971: 53-54). 에도의 오카바쇼는 스미다강 동쪽의 혼조(本所)와 후카가와(深川)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1650년대 후반의 대화재로 요시와라가 아사쿠사지(淺草寺)의 북쪽으로 이전하자, 경내의 불거리나 음식점 등을 포함하여, 아사쿠사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도에 제2의 번화가가 형성되었다 (石井 1967: 21-29).

주요 도시의 번화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카이도(五街道)의 수많은 역촌 주변에 번성한 식당이나 찻집, 매매춘이 가능한 홍등가 등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고카이도의 수많은 역촌 주변 여인숙에는 ‘메시모리온나’(飯盛女)로 일컬어지는 여자들의 매춘이 성행하자, 막부가 단속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今野 1986: 35-45). 이는 근세 일본인들의 여행과 관광의 오락적 성격, 즉 유락(遊樂)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음을 시사하고 있다 (今野, 같은 책 23쪽; Ishimori 1989: 185; Vaporis 1994: 217-19). 순례여행시의 대표적인 이세의 몬젠마치(門前町), 특히 외궁과 내궁 사이에 환락가 후루이치(古市)가 번성한 것(권 1997)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곽은 바로 매춘관광의 성

본래는 ‘카와히라카’라는 여름 강놀이 기간중에 액을 물리치기 위해 기워하는 수신제(水神祭) 때 쏘아올린 것이었다. 이것이 관광용으로 처음 이벤트화 된 것은 1733년의 일이다 (神崎 1991: 58).

지었던 것이다. 따라서, 참배나 참궁(參宮)은 어디까지나 명목이었으며, 여행이나 관광을 떠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新城 1971: 71; Vaporis 1991: 18; 今野 1986: 78–79).

#### (4) 에도 교외의 관광지 – 에노시마(江ノ島)

사이고쿠후다쇼(西國禮所) 순례나 시코꾸(四國) 순례는 혜안시대(平安, 794–1192)부터 시작되었고 하지만(星野 1986: 234), 에도에는 도시화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순례코스가 생겨났다 (比留間 1980: 173). 대개는 당일코스였으나 교외의 신사나 사찰의 거개장 참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 예가 카와구치젠크지(川口善光寺)와 에노시마벤텐(江ノ島弁天) 참배였다. 당시의 기행문학가로 널리 알려진 짓포안(十萬庵)의 『유력잡기』(遊歷雜記)에는 대단히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지만, 에도의 도시화에 따라 시골풍경이 관광대상으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경내의 위락시설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比留間, 같은 책: 176–77). 여기서도 개장(종교)과 놀이(관광)가 세트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젠크지 참배는 당일코스이나 2–3박의 비교적 단기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에노시마벤텐의 거개장이 있었다. 에노시마는 하코네(箱根)의 동쪽에 있어서, 통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세키쵸(關所)를 통과하지 않아도 갈 수 있었다.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에도시민들에게는 단기 여행자로 인기가 대단했다 (今野 1986: 98–102). 1749년에 거개장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에도시민이 참가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에도시내의 사찰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질 정도로(比留間, 같은 책 178쪽), 에도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친숙한 곳이었다. 에도시민에게 있어서 에노시마는 시나가와야도(品川宿)를 출발하는 토카이도 여행이며, 게다가 카마쿠라(鎌倉) 근처의 명소와 고적을 집중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서민들도 큰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코스였다.

개장은 개장사찰 주위에 개장용품(봉헌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형성시켰으며, 지방사찰의 에도 출개장으로 지방사찰의 쿄주(講中, 같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개장참배와 에도관광으로 이어져, 료고쿠바시를 중심으로 한 숙박업의 발달을 촉진했다. 『서유초』에는 “에도에는 관광이나 소송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쿠로초’(지금의 중앙구)에는 100호 정도의 여인숙이 있었다”고(清河 1969: 195)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연극이나 꼥예, 활쏘기, 만담, 꼭두각시인형, 스모 등의 다양한 위락문화가 창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개장을 에도의 관광대상과 관광자원으로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에도의 개장은 에도시민의 경제력(도시화에 따른 자본의 축적)을 바탕으로(クライナ 1996: 60–63), 에도시대 중기에 최전성기를 맞이한 후, 후기에는 양적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에도시대 중기까지는 ‘행락문화’의 특징으로서 종교행사가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개장의 쇠퇴는 위락시설을 갖추지 않고 순수하고 엄숙한 종교적 행사를 내세우는 종파의 탄생으로 신앙과 행락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세참배라는 근세 일본의 폭발적 순례여행 중에서

행락적 참배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足羽 1994: 28)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IV. 동북지방 사람들의 에도관광

##### 1. 여행일기에 나타난 에도의 관광코스

근세 제일의 도시 에도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방문하거나 타의에 의해 방문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전자는 신사나 사찰, 특히 ‘이세참배’나 여행 중에 잠시 들러 에도시내를 구경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소송이나 생업, 지방 번주들의 산 칸코타이에 의한 것이다. 이하 전자를 중심으로 에도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들이 기록한 여행일기를 근거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혼존하는 이들의 여행일기는 명소나 구적, 신사, 사찰 등의 기술에 중점을 둔 것과, 여행일정이나 비용, 약간의 자기 감상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 마지막으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 중심으로 기술한 것 등이 있다 (山本 1985: 71).

근세 일본인 여행의 대명사라면 ‘이세참배’를 들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행일정 중에는 반드시 에도나 나라,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가 들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사쿠라이(櫻井邦夫)가 이세루트를 규명하기 위해 인용한 동북지방(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사람들의 여행일기 101점 중 이세행이 58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구제척 여행일정이 기록된 18점의 여행일기에 모두 에도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櫻井 1985: 158-67). 이는 곧 동북지방 사람들의 이세참배가 에도관광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세까지의 여행일정에 대해서는 몇몇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에도관광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사쿠라이와 야마모토(山本光正)가 이용한 여행일기는 3편의 논문에서 총 27점이다. 이들의 여행코스는 출발지에서 에도에 왔다가 카마쿠라(鎌倉)와 에노시마(江ノ島)를 거쳐 토카이도에 들어가 이세까지 가는 것이었다. 그 후 나라와 오사카, 교토를 둘러본 다음 쿠사초(草津)에서 나카센도(中山道)를 따라 젠코지(善光寺)를 참배한 후, 오이와케(追分)를 지나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에도에 이르는 길은 고카이도(五街道)의 주요 간선도로 외에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내려와 카시마신궁(鹿島神宮), 카토리신궁(香取神宮), 나리타산(成田山)을 경유하는 길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일본해(동해) 연안을 따라 내려와서 이세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토카이도나 나카센도를 따라 에도에 들렸다.

그럼, 이들의 에도관광 사례를 예로 들어 어디를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표-1>은 야마모토가 인용한 여행일기 8점(山本 1987: 337-40)과 사쿠라이의 6점(에도관광 코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 중, 중복된 2점을 제외한 계 12점에 대해서, 특징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만든 것이다.

&lt;표-1&gt; 여행일기에 나타난 에도의 관광코스

사례	에도의 관광코스
① 1771년 3월 22-28일	오지(王子)의 아스카산(飛鳥山)이나 아사쿠사(淺草)와 그 주변, 요시와라(吉原), 료고쿠(兩國) 등을 둘러보고 연극이나 스모, 곡예를 구경하고 쇼핑을 함. 필요에 따라 안내원 대동.
② 1777년 12월 8-11일	후카가와(深川)를 거쳐 카메도(龜戸)와 료고쿠 방면을 돌아, 밤에 요시와라를 구경. 다음 날에 아사쿠사지(淺草寺)를 중심으로 우에노(上野), 유시마텐진(湯島天神), 칸다묘진(神田明神), 다이묘코지(大名小路)를 둘러보고, 마지막날에 니혼바시와 조조지(増上寺), 센가쿠지(泉岳寺)에 들렸다가 이세를 가기 위해 토카이도에 들어감. 필요에 따라 안내원 대동.
③ 1794년 11월 19-21일	아사쿠사지나 우에노, 유시마텐진, 료고쿠바시, 요시와라(밤) 등을 둘러보고, 다음날 에코인, 카메도, 후카가와 방면을 돌아봄. 필요에 따라 안내원 대동.
④ 1816년 12월 3, 14-15일	우에노나 아사쿠사, 카메도, 소마번저(相馬藩邸)를 둘러보고, 키모노 가게를 집중적으로 둘러봄.
⑤ 1818년 12월 13-15일	에도성이나 아타고산, 조조지 등을 보고, 다음날에 료고쿠에서 카메도를 보고, 우에노와 유시마텐진, 칸다묘진, 요시와라를 둘러봄.
⑥ 1827년 7월 4-7일	아사쿠사, 우에노, 유시마텐진, 칸다묘진, 요시와라(밤) 등을 둘러보고 연극을 구경함. 필요에 따라 안내원 대동.
⑦ 1828년 2월 3-19일	17간인 체류 중 이틀간 에도관광. 아사쿠사와 스미다강, 후까가와 방면의 명소와 구적(舊蹟)을 돌아봄.
⑧ 1830년 1월 21-23일	칸다묘진, 유시마텐진, 우에노, 아사쿠사, 요사와라를 보고, 료고쿠바시를 건너 에코인과 요시와라, 후카가와 부근을 둘러봄. 다이묘 관저 방문. 필요에 따라 안내원 대동.
⑨ 1841년 1월 17-21일	칸다묘진, 유시마텐진, 우에노, 카메도, 요시와라를 둘러봄. 연극을 구경함. 아이즈카미야시키(會津上屋敷)에 들름.
⑩ 1851년 1월 16-18일	칸다묘진, 유시마텐진, 히가시혼간지, 아사쿠사, 카메도, 에코인, 료고쿠를 둘러보고, 다음날에 연극을 구경하고, 다이묘관저와 아타고산, 센가쿠지를 둘러봄. 다리의 짚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에 따라 안내원 대동.
⑪ 1856년 2월 7-11일	우에노와 아사쿠사, 카메도 방면과 다이묘코지에서 산노콘켄(山王權現), 아타고산(愛宕山) 등을 돌아보고 연극을 구경함.
⑫ 1874년 1월 31일-2월 5일	토쿄구경. 아사쿠사지, 히가시혼간지, 오시마텐진을 둘러보고, 연극과 요시와라를 구경함. 지인(知人)의 안내.

\* 이 표는 사쿠라이(櫻井 1985: 171)와 야마모토(山本 1987: 337-40)의 인용자료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재구성한 것임.

여행한 사람들의 직업은 지방 관리에서 상업, 복제상, 문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여행은 단체여행이며, 그 규모는 적개는 3-5명, 많개는 10-20명에 이른다. 에도에 머문 기간은 3-4일이 가장 많으며, 특수한 경우지만 17일간 머문 에도 있다(표의 ⑦).

어느 것이나 도보여행이었으므로 에도의 풍물과 명소, 고적들에 대한 자세한 관광이 가능했으며, 특히 에도성을 비롯한 시가지의 거대함과 변화함에 이끌린 것 같다. 이러한

견문이나 경험에 의한 에도관이 각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에도 근교의 카마쿠라와 에노시마도 거의 모든 여행팀들이 찾고 있는데, 이는 에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여행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에도를 포함하여 카마쿠라와 에노시마, 오야마(大山), 후지산, 나리타(成田), 카시마(鹿島), 낚코(日光) 등의 명소와 유적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사쿠라이가 에로 듣 여행일기 18점 가운데 14점에서 이러한 예가 발견된다 (櫻井 1985: 158-67). 신조(新城常三)에 의하면, “이세참배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에도의 서민층도 근처의 오야마나 나리타에는 비교적 쉽게 참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나리타산 신앙과 참배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에도에 온 여행객들의 발길을 나리타까지 끌기게 했을 것이다”(山本, 1985: 76에서 재인용)고 했다.

에도의 관광코스는 크게 칸다에서 우에노를 거쳐 아사쿠사를 돌아보는 코스와 (표의 ③, ⑤, ⑥) 그 역순인 아사쿠사에서 우에노, 칸다를 돌아보는 코스(표의 ②, ④, ⑧)가 있다. 나머지 지역은 각 지방에서 에도에 들어 오는 길이나 나가는 길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에도의 관광코스가 형식화된 것은 관광안내업자의 출현과 에도명소기를 비롯한 에도시내 관광안내서(도)의 보급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山本 1985: 69-73; 櫻井 1985: 172). 더구나 안내자 없이 여행한 사례(표의 ④, ⑤, ⑦, ⑨, ⑪)에서도 거의 같은 코스를 따라 여행한 것은 안내서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2. 에도의 주요 관광지

거의 모든 팀들이 반드시 들러보는 곳은 아카사카지를 비롯하여 우에노, 유시마텐진, 칸다묘진, 카메도텐진, 아타고산, 센가쿠지이고, 이것을 순서에 관계없이 권역별로 나누면, 우에노와 아사쿠사, 후카가와, 카메도 방면의 상인 밀집 지역과 칸다와 니혼바시, 다이묘코지, 아타고산, 조조지, 센가쿠지 방면의 현재의 도심지역이다. 암모토도 지적한 것처럼, 에도성을 중심으로 한 오른 쪽의 동북지역이 이세참배객들이 돌아본 에도의 관광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돌아본 곳은 료고쿠바시 번화가(극장, 가게)를 중심으로 신사와 사찰(경내의 난장), 유곽 등이었다. 특히 번화가에는 일상과 단절된 일종의 홍분이나 도취를 야기하는 음란적이며 환락적인 장치계가 있었다. 또한 유곽 요시와라에는 12팀 중 8팀이 들렀는데, 들어내 놓고 밀하기 여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다른 팀들도 거의 모두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들만의 장기간에 걸친 여행이고 보면, 요시와라는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세참배 후의 ‘쇼진아케’(수행기간 종료)의 장으로서 이세신궁 몬젠마치 (門前町)의 후루이치(古市)와 오사카의 신마치, 교토의 시마바라 등의 유곽은 도시관광과 함께 정례화된 코스였다 (神崎 1991: 133-34). 신사참배를 마치고, 시내관광이나 연극, 곡예, 활쏘기 등을 즐기고, 밤에는 연회를 열며, 남성들은 유곽에 들른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의 정형화된 여행형태였다.

이들 지역은 에도에서 가장 붐비는 곳으로, 에도의 관광지는 다름 아닌 거대한 번화

가였으며,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봄비는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아메리카(アメリカ彥藏)의 다음 글은 이러한 시골 사람들의 에도에 대한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에도는 너부 봄벼서 완전히 정신을 못차릴 정도였다. 앞에 가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처음에는 오른쪽, 다음은 왼쪽’ 하는 식으로 무엇이든지 많이 보려고 했다 (川上・中川 1964; 山本 1987: 348에서 재인용).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번서(藩邸)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의 ④, ⑧, ⑨, ⑩). 여기서, 우리는 에도에 거주하고 있는 번주 및 그의 가신들과 영지 주민들(여행객) 사이에 여러 형태의 정보가 교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의 지방 사람들의 에도여행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오사카나 교토의 서쪽 지역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은 것은 에도가 이세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과, 앞에서 살펴본 나라와 오사카, 교토와 같은 에도를 대신할 수 있는 도시관광지가 그들의 여행코스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에도관광은 지역적 편중이 심했다. 이것이 야마모토의 지적처럼, 에도막부가 개설된 후에 서국 사람들의 에도에 대한 대항의식(山本 1987: 350), 다시 말해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의식 때문인지는 좀 더 많은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여행안내업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사와 사찰 참배 때의 오시(御師)나 센다초(先達)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문 1997),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도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안내업자가 그것도 하타고야(旅籠, 여인숙)와 제휴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나라나 오사카, 교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세참배를 마친 여행객이 처음으로 찾는 곳은 나라이다. 나라에서는 안내업자(70명)의 여행객들에 대한 횟포를 단속하기까지 했나는 기록이(山本 1985: 79)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는 곧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여행객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많은 동북지역 사람들이 에도를 쉽게 관광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막부의 교통정책에 의한 도로나 시설의 정비되었고, 둘째 ‘이세참배의 대유행’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할 수 있었으며, 셋째 여행의 코스화와 형식화에 크게 기여한 수많은 여행안내서의 간행과 보급에 따라 에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마을사회까지 들어 왔으며, 넷째 마을사회의 코(講)조직의 발달로 여행시의 안전과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단체여행이었으며(자세한 것은 문옥표 1997을 참조), 다섯째 에도시내의 안내업자의 등장으로 효율적인 여행안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

여행객에게는 이동하는 공간 그 자체가 바로 관광지이겠지만, 명소나 유적 등의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에도와 나라, 오사카, 교토와 같은 대도시였다. 에도 근교 사람들의 몇몇 사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여행일정에서 이들 지역이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 V. 도시가 근세 일본의 관광대중화에 미친 영향

근세 일본의 에도관광은 ‘모든 길은 에도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된

교통망과 숙박시설, 이세참배라는 대유행 현상, 전국 다이묘들의 산킨코타이, 전국 유명 사찰의 에도 출개장, 각종 법적 소송을 위한 지방사람들의 에도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관광대상으로서의 에도에 관한 정보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전국 각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에도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마침 근세 초기에 시작되어 중기에 일반화된 에도의 명소에 관한 안내서가 발행되어 널리 보급됨으로써, 에도를 향한 행렬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에도를 중심으로 하여 카마쿠라와 에노시마, 나리타산을 포함하는 전국 유수의 지역관광권이 성립될 수 있었다.

한편, 에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간소외와 사회불안이 가중되자, 에도 사람들은 정신적인 안정과 구원을 위한 신사·사찰참배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락·유람여행에 적극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에도의 많은 변화가는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개인과 집단과의 교제로 인한 긴장과 구속을 의명성(anonymity)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관광대상으로서 도시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명소와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못지 않게 인간소외와 긴장,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변화가와 유혹시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도시문명의 자기표현 장치’(高田, 1991: 1-2)로서 여행객에게 의명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계이다.

에도에는 막부의 관리를 비롯한 지방 번주들과 그들의 가신 등 엄청난 무사들이 살고 있었다. 그야말로 ‘무사들의 미야코’였다. 이들은 그들만의 폐쇄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완전한 소비계층인 이들을 상대로 생업을 꾸려가는 상인들과도 점차 교류가 이루어졌다. 신사나 사찰, 명소, 극장, 변화가, 시장, 유곽 등은 관광을 매개로 한 교류의 장이었다. 근세의 도시관광이 지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근세 초기에 시작되어 중기에 일반화된 참배와 행락이 세트된 여행형태는 후기에 이르러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보고 즐기기 위한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된다. 근세 초기까지의 참배와 행락이 세트된 여행이라 해도, 참배는 대단히 형식적이었며 실제는 행락이나 유람 목적의 관광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의 성행 자체가 에도시대의 전국 각지에 새로운 문화를 넣게 했으며, 니시야마(西山松之助)는 이것을 ‘행동문화’로<sup>7)</sup> 규정했지만, 사람들의 ‘공간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문화 안에서 근세 일본문화의 많은 부분이 형성되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이렇게 볼 때, 이세참배 신앙에 뒷받침된 여행의 체계화(加藤 1976: 166-70)와 함께 문화혁신의 장으로서, 관광대상으로서, 내발적 충동(관광욕구)의 전원지로서 도시가 갖는 매력은 근세 일본의 유락적 관광문화의 성립과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글에서 밝혀진 근세 일본의 관광대중화에 도시가 차지하는 위상을 바탕으로,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도시가 관광에 미치는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유희적으로 장치화된 다기능복합형의 유원지인 ‘테마파

<sup>7)</sup>니시야마(西山松之助)는 주로 에도의 문화현상의 한 측면을 ‘행동문화’로 파악하고 있다. 즉, 신사나 사찰, 명소 등의 순례, 엔니치(緣日), 개장(開帳), 유람여행, 납량, 꽃구경, 제례, 불거리 구경, 다도(茶道), 꽃꽂이, 무용 등에 대한 민중의 참가 양식을 말한다 (西山 1975).

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권숙인, 1997, 「근세 일본에서 대중관광의 발달과 종교 - '이세마이리(이세신궁참배)'를 중심으로」, 교육부 해외지역연구 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그래이번 넬슨, 1994, 「관광인류학」, 전역수 (편역) 『관광과 문화』, 일신사, 25-50쪽.
- 김양주, 1997, 「일본관광 명소와 자원의 변천 -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만들어지는 '명소'」, 교육부 해외지역연구 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문옥표, 1997, 「일본관광의 사회조직 - 단체여행의 역사와 문화」, 교육부 해외지역연구과제 『관광 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스미스 내쉬, 1994, 「인류학으로부터의 접근」, 이언택 편저 『관광학연구의 이해』, 일신사, 75-97쪽.
- 칸도 마사히로, 1996, 「수도이전」『지구가족』(한글판), 동경지구가족출판사, pp.28-29.
- 아메리카彥藏, 1964(山口修・中川努 譯), 『アメリカ彥藏』, 平凡社.
- 比留間尚, 1980, 『江戸の開帳』, 吉川弘文館.
- 星野英記, 1986, 「歩きと巡りの宗教性・西國巡禮と西國遍路」, 山折哲雄編 人系・佛教と日本人 6, 『遊行と漂泊』, 春秋社, pp.231-71.
- 石井良介, 1967, 『吉原江戸の遊廓の實態』, 中央公論社.
- ジ・ボルト, P. F. von, 1967(齊藤信 譯), 『江戸參府紀行』, 平凡社(東洋文庫87).
- 神崎宜武, 1991, 『物見遊山と日本人』, 講談社現代新書.
- 加藤秀俊, 1976, 「旅行」, 講座・比較文化 第4巻『日本人の生活』, 研究社, pp.157-81.
- ケンペル, E.(Kaempfer, E.), 1977, 『江戸參府旅行日記』, 平凡社(東洋文庫 303).
- 清河八郎, 1969(小山透勝一郎 譯), 『西遊草』, 平凡社(東洋文庫 140).
- 今野信雄, 1986, 『江戸の旅』, 岩波新書 349.
- 水江連子, 1974, 「初期江戸の案内記」, 西山松之助編『江戸町人の研究』第3巻, 吉川弘文館, pp.31-107.
- , 1985, 「近世初期の江戸名物」, 西山松之助先生古稀記念會 編『江戸の民衆と社會』, pp.5-33.
- 村山元英, 1984, 「觀光變容の社會狀況と現代都市」, 『都市問題』75-4, 東京施政調査會.
- 中川浩一, 1985, 『觀光の文化史』, 築摩書房.
- 西川幸治, 1994, 『都市の思想(上)』, 日本放送出版協會(NHK BOOKS 696).
- 西山松之助, 1975, 『江戸町人の研究』第4巻, 吉川弘文館.
- 能登路雅子, 1990, 『ディズニーランドといふ聖地』, 岩波新書 132.
- 小木新造, 1995, 『江戸東京學への招待[1]』, 日本放送出版協會(NHK BOOKS 750).
- 櫻井邦夫, 1985, 「近世における東北地方から旅」, 『驅澤史學』34, pp.144-81.
- 白幡洋一郎, 1996, 『旅行ノスメ』, 中公新書 1305.
- 新城常三, 1971, 『庶民と旅の歴史』, 日本放送出版協會.
- 園田英弘, 1994, 『みやこ』という宇宙 - 都會, 郊外, 田舎』, 日本放送出版協會(NHK BOOKS 696).
- 高田公理, 1988, 「遊戲化社會の觀光資源」, 『月刊觀光』263號, pp.15-19.
- , 1991, 「都市とその模型 - 文明の自己表現裝置」 국제심포지엄 『近世世界における 日本文明: 觀光の比較文明學』, 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발표된 논문초고.

- 豊田武, 児玉幸多 編, 1970, 體系日本史叢書 24, 『交通史』, 山川出版社.
- 山本光正, 1985, 「旅日記にみる近世の旅について」, 『交通史研究』第13號, pp.69-84.
- , 1987, 「諸國人にとっての江戸・社寺參詣者を中心として」,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2, pp.335-55.
- 山本武夫, 1987, 『大學受験 詳解 日本史』, Obunsha.
- 山下晋司 編, 1996, 『觀光人類學』, 新曜社.
- 米山俊直, 1986, 『都市と祭りの人類學』, 河出書房新社.
- Graburn Nelson, 1983, *To Pray, Pay and Play: the Cultural Structure of Japanese Domestic Tourism*, Aix-en-Provence: Centre des Hautes Etudes Touristiques.
- Ishimori, Shuzo, 1989, "Popular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ourism in Early Modern Japan," in *Japanese Civilization in the Modern World IV: Comparative Studies of Economic Institutions*, eds. by Umesao Tadao, Mark Fruin, and Nobuyuki Hata, Senri Ethnological Studies, no. 25.
- Tokuhisa, Tamao, 1980, "Tourism within, from and to Japa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32: 128-150.
- Vaporis, Constantine, N., 1991, "The Early Modern Origins of Japanese Tourism," a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Japanese Civilization in the Modern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in Tourism," 1991.3.18 - 3.25, National Ethnological Museum, Osaka, Japan.
- , 1994, *Breaking Barriers: Travel and State in Early Modern Japan*,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Press.

## Urban Centers and Tourism in Early Modern Japan

Dal-Ki, Hwang

*Keimyung University*

When talking about tourism of Edo during early modern Japan, we can say 'All roads are connected to Edo'. The reasons are there were well-built transport infrastructures and inns, the phenomena called 'pilgrimage to Ise' was prevailed, the alternative attendance of all Daimyos was, Buddha statues in the famous temples all over the nation were opened to the public and many people visited Edo for various legal suits. As information about Edo's tourism spreaded all over the country, touring Edo became more popular.

On the other hand, as human-alienation and the insecurity in Edo deepened because of its rapid urbanization, residents in Edo began to tour in order to relax and worship at the shrine · Buddhist temple for salvation and mental relief. Many fancy streets in Ed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emporarily relieving the strain and tension of it's visitors. The biggest fascination with urban tourism is that there are a concentration of vestiges, busy streets and amusements in which people can be released from human-alienation, tension and anxiety.

The tour style which combined worship with enjoyment had occurred in early modern Japan and became common in middle modern times. In the late times, worship and enjoyment began to separate and the full-size tour for only enjoyment started. Although the tour style combining worship and enjoyment had remained during early modern times, the worship was very formal and the tour focused on sightseeing and pleasure. New cultures all over the nation during the era of Edo, were created through this kind of tourism. Many parts of modern Japanese culture were developed through tourism cultures, which can be called 'space-transfer'.

Thus, the urban's fascination, as the place where a new culture is made with the systematization of a tourism backed by the belief of 'pilgrimage to Ise', as the object of tour and as the resource of internal impulse (desire for tou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nd publicizing the pleasure-seeking tourism in early modern Japan.